

창간 3주년 특별 기획 ②

제과인의 라이프 스타일

창간 3주년을 맞아 본지에서는 제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해 보았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제과인들의 생생한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제과인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

10년이면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니다.

세월의 흐름은 사람살이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루가 달리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가장 민감해야 할 제과인의 자화상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에 본지는 창간 3주년을 기념하여 제과인의 라이프 스타일
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이번 설문 자료 통계는 현재 우리 제과인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 방법

이번 조사의 목적은 소비자의 소비 기호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제과인의 의식 및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졌다.

조사 대상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업주들로 한정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복수 응답자를 응답수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분석 결과 3% 이내의 복수 응답으로 인한 백분율이 전체 응답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통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원칙적으로 무응답자를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각 문항마다 전체 응답자 수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설문 조사의 방향은 '제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계에 입문한 시기, 취미 및 친목 모임의 성격, 한달에 지출하는 경조비나 용돈 등 주로 개인의 생활 실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해외 연수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을 연계하여 향후 제과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소수점 한자리 이하의 숫자는 '버림'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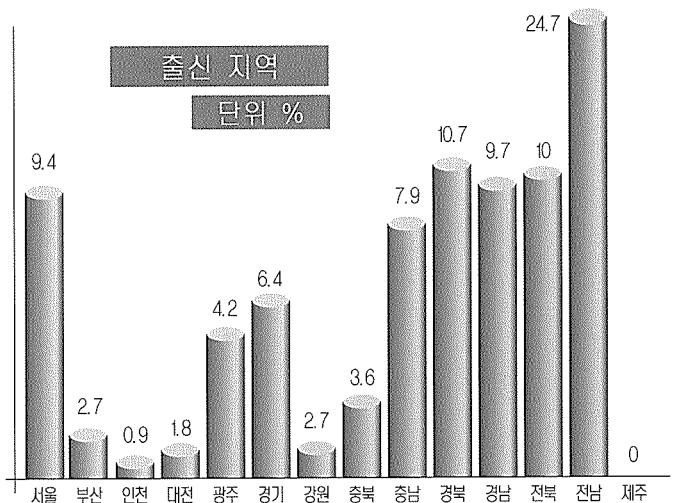
1. 당신의 출신지역은 어디입니까?

전남출신 24.7%로 가장 많아

현재 활동중인 제과인들의 출신지역을 조사함으로써, 제과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전라도 지역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이 24.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두각을 보인 곳이 경북(10.7%), 경남(9.7%), 서울(9.4%) 등으로 나타났다.

총응답(실제응답) : 327명

지역	응답	지역	응답
서울	31명(9.4%)	충북	12명(3.6%)
부산	9명(2.7%)	충남	26명(7.9%)
인천	3명(0.9%)	경북	35명(10.7%)
대전	6명(1.8%)	경남	32명(9.7%)
광주	14명(4.2%)	전북	33명(10%)
경기	21명(6.4%)	전남	81명(24.7%)
강원	9명(2.7%)	제주	0명(0%)



2. 당신은 기술인 출신입니까? 그렇다면 언제 기술을 배웠습니까?

기술인 출신 76.1%, 20세 전후 기술 습득

제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술을 직접 습득한 상태에서 제과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기술습득 문제는 제과인의 활동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방법에 있어서, 연령차이를 2살 터울로 다소 세밀하게 했다.

기술인 출신이 전체 응답자 중 76.1%로 나타나 강세를 보였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0명으로 전체 23.8%를 차지했다. 또 기술인 출신에 한해서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19~20세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기술 습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17~18세가 18.6% 23~24세 9.9% 순으로 나타났다.

총응답(실제응답) : 331명

기술인 출신(252명, 76.1%)에 한함.

나이	응답	나이	응답
15세이전	2명(0.7%)	25~26	24명(9.5%)
15~16	12명(4.7%)	27~28	6명(2.3%)
17~18	47명(18.6%)	29~30	9명(3.5%)
19~20	89명(35.3%)	31~32	2명(0.7%)
21~22	23명(9.1%)	33~34	
23~24	25명(9.9%)	35세 이후	13명(5.1%)

3. 당신은 언제 제과점을 개업했습니까?

총응답(실제응답) : 331명

나이	응답	나이	응답
25세이전	6명(2%)	39~40	9명(3%)
25~26	17명(5.6%)	41~42	11명(3.6%)
27~28	24명(8%)	43~44	7명(2.3%)
29~30	56명(18.6%)	45~46	3명(1%)
31~32	46명(15.3%)	47~48	1명(0.3%)
33~34	37명(12.3%)	49~50	1명(0.3%)
35~36	48명(16%)	51~52	1명(0.3%)
37~38	29명(9.6%)	53~54	4명(1.3%)

기술 습득 시작 10년 후 많이 개업

이 질문은 기술 습득 연령과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앞서 2번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19~20세의 연령에서 가장 많은 기술습득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과연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제과점을 개업했는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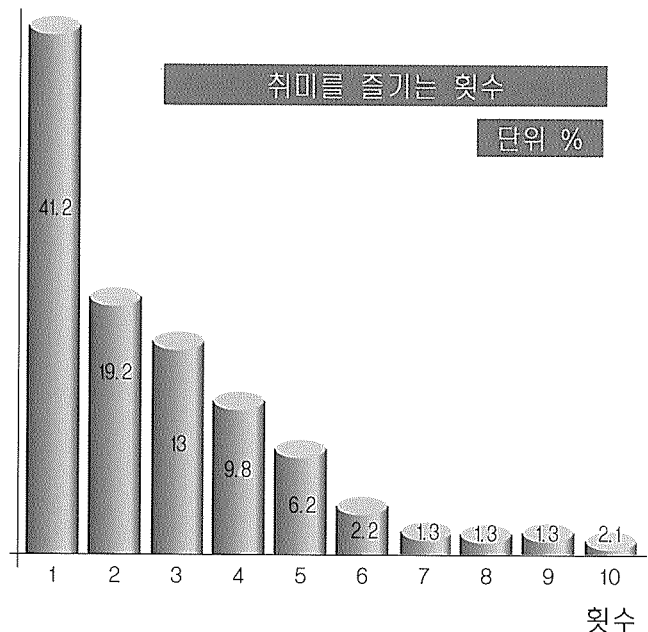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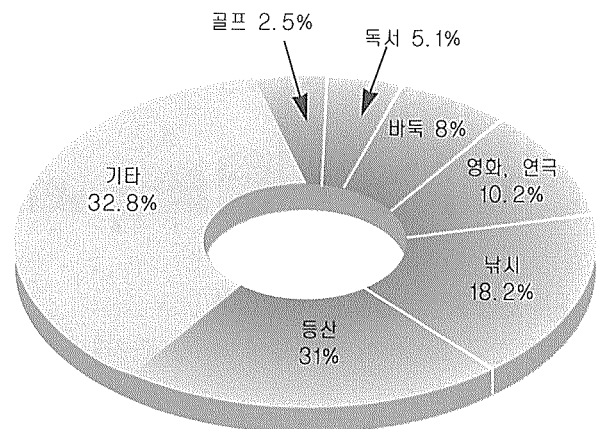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제과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19~20세로부터 가장 많이 응답한 개업 연령 29-30세까지는 약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과기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 기술인 출신인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4. 당신의 취미는 무엇이며 1개월에 몇 회 하십니까?

등산 31%로 가장 많고 낚시순으로 취미생활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관한 설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 제과인들은 등산 31%, 낚시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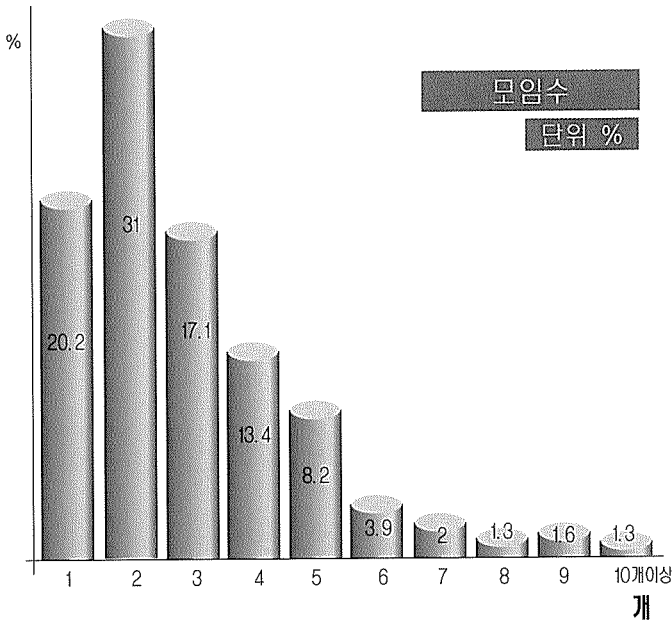
총응답(실제응답) - 취미 274명, 횟수 223명



순으로 취미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1개월에 1회(41.2%) 내지 2회(19.2%) 정도밖에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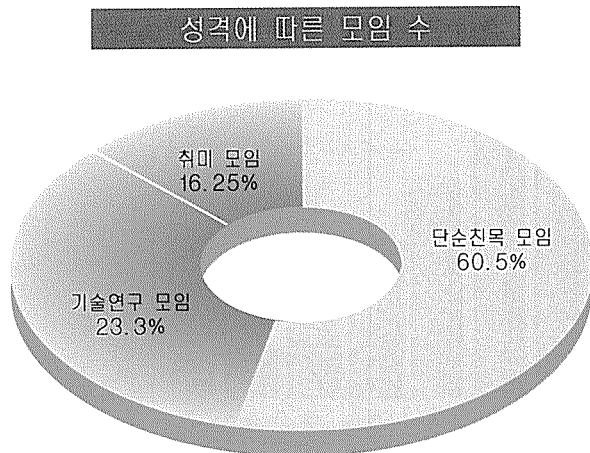
5. 귀하는 업계 관련 모임을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며, 성격에 따른 모임숫자는?

총응답(실제응답) : 306명



2개 모임 가입이 31%로 가장 많아

이번 항목 조사에서 총 응답자 306명 중 2개의 업계 관련 모임을 갖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95명으로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 1~2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70%를 차지하였으며 10개 이상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도 1.3%였다.



단순 모임 압도적, 기술 모임 1개가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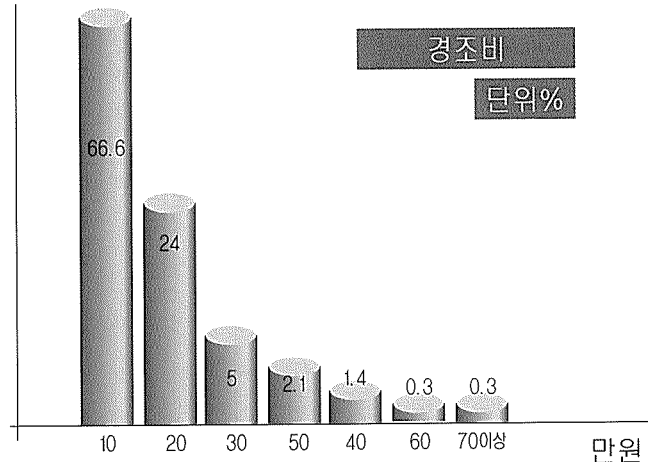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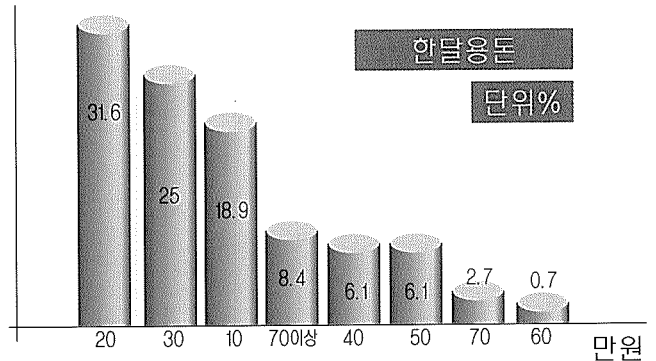
모임 성격에 따른 분류에서도 단순 침묵 모임, 취미 모임, 기술 연구 모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침묵 모임이 65.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단순 침묵 모임 수에 있어서도 1~2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수가 87.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기술 연구 모임수가 17%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 아쉬움을 남겼다. 모임의 수도 1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어서 기술 연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한달 용돈은 얼마이고, 한달 평균 경조비는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총응답(실제응답) - 용돈 259명, 경조비 279명

액수(단위:만원)	한달용돈	경조비
10	49명(18.9%)	186명(66.6%)
20	82명(31.6%)	67명(24%)
30	65명(25%)	14명(5%)
40	16명(6.1%)	4명(1.4%)
50	16명(6.1%)	6명(2.1%)
60	2명(0.7%)	1명(0.3%)
70	7명(2.7%)	0명(0%)
70이상	22명(8.4%)	1명(0.3%)



10만원 미만 가장 많아 경조비는 용돈 1/2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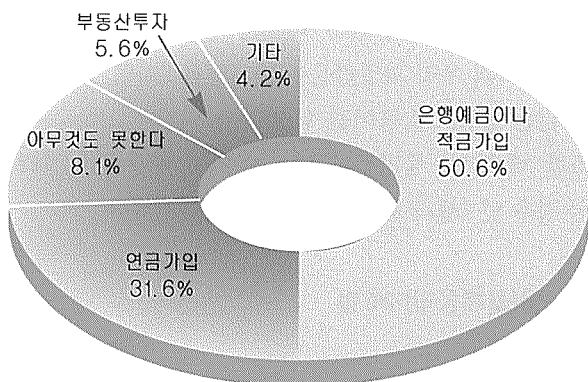
한달 용돈에 대한 응답으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82명 31.7%로 집계됐다. 이를 더 세분하면 16~20만원의 용돈이 23.9%로 가장 많았다. 총 응답자 259명 중 75.7%가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용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띠를 졸라맨 월평균 5만원 이하의 응답자도 7명 2.7%이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70만원 이상도 22명 8.7%나 돼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경조비 부문에서는 월평균 10만원 이하의 경조비를 부담한다는 대답이 186명 66.7%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으로 경조비는 한달 용돈의 1/2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노후 및 자금난에 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응답(실제응답) 358명



과반수 은행 예금, 연금도 31.6%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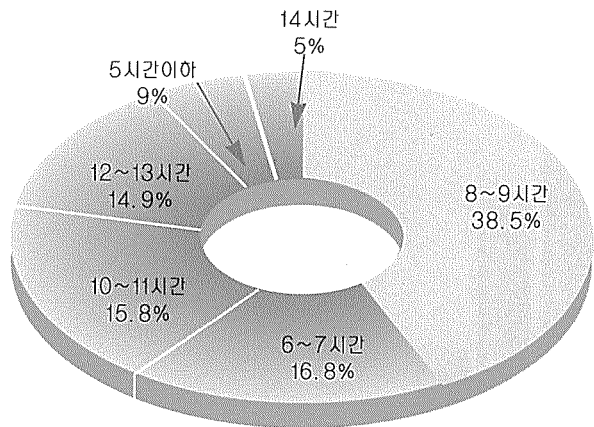
총 응답자 358명인 중 181명 50.5%가 노후 및 자금난에 대비하여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다고 응답해 과반수 이상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연금 가입과 부동산 투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예금과 연금등 2~3가지의 자금 대비를 해놓은 안전 대책형도 11.7%로 눈에 띄었다.

이에 반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다는 무방비형도 8.1%로 조사됐다.

8.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다면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까?

총응답(실제응답) 221명



38.5%가 1일 9시간 근무, 26.3% 직접 일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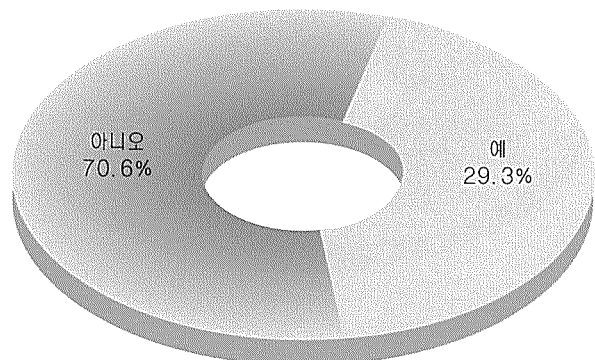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대답한 221명중 85명 38.5%가 하루 평균 8~9시간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간상으로는 6~7시간, 10~11시간, 12~13시간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설문 조사에서 보면 과반수 이상이 하루 평균 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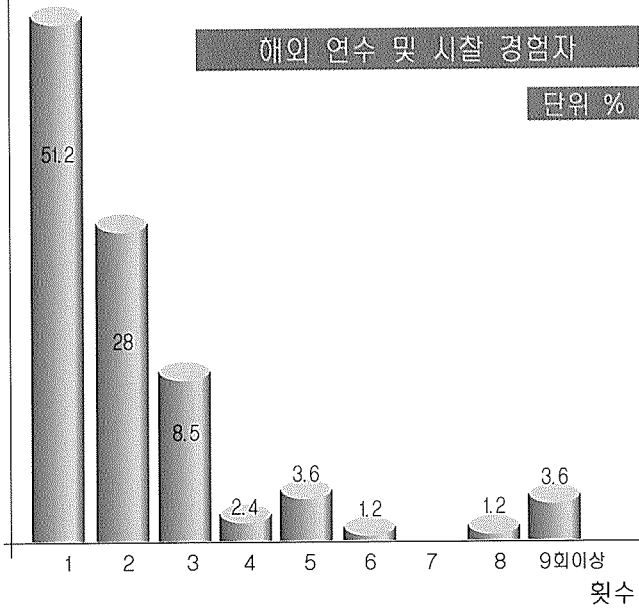
또한 5시간 이하의 근무를 한다는 응답자 9%에 비해 적은 수치이지만,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5%로 조금은 무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응답자 300명중 79명 26.3%은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경영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귀하는 해외연수 및 시찰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총응답(실제응답) 2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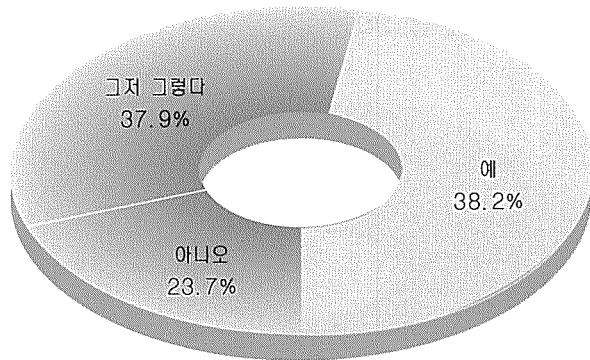
연수 경험 29.3%, 횟수는 1회가 51.2%

기술연수의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면서 연수나 시찰 목적으로 외국을 찾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로 윈도우 베이커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중 29.3%인 86명이 해외 연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해외연수 횟수에서는 1회가 5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회가 28%를 기록했다. 반면 4회 이상은 12.3%에 불과했다.

10. 귀하는 현재 하고 있는 제과업에 만족하십니까?

총응답(실제응답) 269명



만족한다 38.2%로 만족도 낮은편

과업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느끼는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전체 응답자 269명 중 '만족하고 있다' 와

'그저 그렇다'의 비율이 각 38.2%, 37.9%로 나타난 반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이것은 과거와 달리 제과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저 그렇다'고 답한 37.9%의 응답자의 경우처럼 아직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확고한 직업의식이나 긍지를 느끼지 못하는 점은 우리 제과인들의 향후 숙제라 할 수 있다.

11. 귀하는 현재 자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입니까?

기업 승계 12.5%로 낮은 편 속해

전반적으로 현재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대물림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전체 응답자 287명 중 12.5%인 36명만이 자녀에게 제과점을 물려주겠다고 답했다.

반면 55.4%인 287명의 경우 자녀에게 제과점을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대물림이 빈번한 외국과 달리, 아직 우리 과업인들이 제과업을 '가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제과점을 물려줄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경우인 '생각 중이다'도 32%나 차지했다.

총응답(실제응답) 287명

